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과 “길”의 성격*

김 용 철**

차 례

1. 문제 제기
2.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
3. 작품 구성과 두 가지 “길”의 성격
4. 결론

| 국문초록 |

이 글은 1555년에 지어진 가사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과 작품 속에 형상화된 “길”의 성격을 살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서별곡〉은 1555년 평안병영의 병마평사로 부임한 백광홍이 지은 최초의 기행 가사이다. 이 글에서는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으로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관서별곡〉이 지어진 1555년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이다. 바로 북로남왜와 을묘왜변이다. 당시 명나라는 북쪽으로 몽고 알탄 칸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쪽에서 새로 왜구가 침략해 들어왔다. 역사상 북로남왜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한편 백광홍이 평안병영에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 을묘왜변으로 1555년 5~6월 사이에 남쪽 전라도에서 을묘왜변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이자 동시에 작품 속에 뚜렷이 전쟁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또한 작품의 목적과 이념 지향까지도 결정하고 있다.

둘째, 〈관서별곡〉과 연관이 있는 백광홍의 특별한 교유인물이다. 백광홍의 상관인 평안병사 민응서가 우선 꼽힌다. 민응서는 전라도 태인에 거주하는 백광홍의 스승 일재 이항의 친구이다. 아마 인제가 필요했던 민응서가 친구의 제자인 백광홍을 보내달라고 조정에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일재 이항은 젊어서 무인이었지만 30살 이후 성리학자의 길을 걷은 사람이다. 이항이 지닌 문무겸전의 성향은 〈관서별곡〉 안에 부리내리고 있다. 〈관서별곡〉이 창작된 1555년 바로 전해인 1554년 10월 백광홍의 첫 번째 스승이었던 영천자 신잠이 세상을 떠난다. 현량과 출신의 기묘사람으로 평생을 의롭게 살아가던 이 스승의 족적 역시 〈관서별곡〉의 드높은 국토 사랑 속에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창작 배경에 이어 〈관서별곡〉의 구성과 작품 속에 구현된 “길”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작품 속 두 가지 “길”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현실 속에서 직접 체험한 길이다. 둘째, 송고와 왕화라는 미학적 감정과 관련된 길이다. 이 두 가지 길은 〈관서별곡〉 전반부의 부임길과 후반부의 순행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6462)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원

길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관서별곡>은 작품 속에 표현된 “길”의 특성에 따라 작품 구성이 결정되었다. 또한 아주 복합적인 시각과 그 만큼의 드높은 국토에 대한 찬양을 성취하고 있다.

핵심어 : <관서별곡>, 백광홍, 북로남왜, 을묘왜변, 병마평사

1. 문제 제기

이 글은 1555년에 지어진 가사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과 작품 속에 형상화된 “길”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서별곡>은 최초의 기행가 사이자 초창기 가사 중 하나로 1580년에 지어진 <관동별곡>의 선구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여 국문학사상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꼽힌다. 이 글은 <관서별곡>이 지어진 1555년이 명나라의 이른바 북로남왜(北虜南倭) 시기였고 조선에서는 남쪽 전라도에서 을묘왜변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는 점에 착안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관서별곡>은 바로 이렇게 커다란 국제 정세의 혼돈에 대응하여 지어진 작품이라는 것이다.

<관서별곡>은 1961년 발굴되었다. 이후 다양한 연구방법과 시각 아래 훌륭한 연구성과들이 나왔다. 「관서별곡」은 『지봉유설』, 『순오지』 등 초기 가사를 언급하는 기록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에 국문학 연구 초창기부터 실전작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다 이상보가 발굴하여 소개하게 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상보는 작품의 발굴 경위, 작자 백광홍, 창작시기, 작품의 구성과 주제 등 「관서별곡」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하였다.¹⁾ 이후 「관서별곡」 연구는 이상보의 연구를 이어받아 작품의 특성, 구성, 작자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특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져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이상보의 연구의 틀을 여러모로 혁신하는 몇 가지 논의들이 시도되고 있다. 백광홍의 문집 『岐峯集』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결집되어온 과정을 정리하고 국문가사 「관서별곡」이 문집 속에 들어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장희구의 연구²⁾와 백광홍의 문집 『岐峯集』을 번역한 정민의 업적³⁾은 앞으로

1) 이상보, 「〈關西別曲〉研究」,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1963, 54~76쪽.

「관서별곡」 연구가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준 업적으로 특별히 언급해야 한다.

김종진은 문학지리학이라는 연구방법 아래 「관서별곡」의 ‘길’에 특별히 주목하여 백광홍의 여정이 거쳐간 지역을 자세히 고증한 연구⁴⁾를 발표하여 「관서별곡」 연구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 김종진의 업적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백광홍의 「관서별곡」이 지어진 16세기 중반 당대 평안도 병마평사라는 제도와 「관서도」라는 조선시대 지도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관서별곡〉에 대한 좀더 나은 해석의 지점을 마련하려고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관서별곡〉을 작자 백광홍이 1555년에 평안병영의 평사로서 한양에서 평양, 영변, 만포, 의주에 이르는 한반도 서북부를 돌아본 특별한 기행 경험을 서술한 가사라는 시각하에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관서별곡〉을 둘러싼 백광홍의 이러한 특별한 기행 경험을 가능하게 한 1555년만의 특별한 구체적 상황에 기반하여 작품의 내적 외적 특징을 좀더 세밀하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채택하려고 한다. 첫째, 1960~70년대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작품의 “창작 배경”이라는 연구방법이다. 창작 배경이란 작가의 생애와 주로 교유한 인물들을 작품과 관련하여 파악함으로써 작품 해석에 있어서 작품 외적 기준점들을 좀더 폭넓게 제공하려는 시도였다.

창작 배경과 함께 이 글이 채택한 또 하나의 연구방법은 인문지리학 중 역사문화지리학이다. 기행가사인 〈관서별곡〉의 해석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리적 지식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문학지리학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한반도 서북부라는 특정한 지리적 공간에 쌓인 역사적 요소들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역사문화지리학의 방법을 원용하기로 한다.

이 두 가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

2) 장희구, 「고봉 백광홍의 〈관서별곡〉 결집 고찰」, 『국어교육』 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222~249쪽.

3) 백광홍 저, 정민 역, 『기봉집』, 2004.

4) 김종진, 「〈關西別曲〉의 문화지도와 국토·국경 인식」, 『국제어문』 50, 국제어문학회, 2010, 31~61쪽.

으로서 북로남왜와 을묘왜변이라는 역사적 상황, 민응서·이항·신잠이라는 세 주요인물과의 교유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서 작품 안에 등장하는 “길”의 다양한 성격들을 분석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정황에 입각하여 작품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놓쳤던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

그럼 본격적으로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1555년 백광홍이 평사로 부임했던 당시 평안병영을 중심에 놓고 보았을 때 가장 큰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나 하는 것과 당시 작자 백광홍에게 특별히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품의 창작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작품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을 창작하게 된 계기이자 작품의 목적, 작품 속에 구현된 이념과 미학 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검토이자 구체적인 작품 외적 맥락의 파악이기도 하다.

2.1 북로남왜와 을묘왜변

그럼 먼저 작품이 지어진 1555년에 일어난 특별한 역사적 상황을 작품의 창작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단적으로 말해 명나라를 뒤흔든 북로남왜와 조선을 충격에 빠뜨린 을묘왜변이 그것이다. 1555년 당시 명나라는 매년 북쪽 몽고족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다. 거기다가 1554년부터 남쪽 지역에서 왜구가 본격적으로 쳐들어온다. 이른바 가정제 시기 북로남왜(北虜南倭)⁵⁾가 바로 이때이다.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1555년 음력 5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양력 6월부터 7월까지 조선의 남쪽 전라도에 왜구가 쳐들어온다. 이른바 을묘왜변이 그것이다.

5) 북로남왜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한명기, 「임진왜란 직전 동아시아 정세」, 『한일관계사연구』 43, 한일관계사학회, 2012, 192~195쪽.

이 사건들은 〈관서별곡〉의 창작과 구성에 특별히 관여하고 있다. 〈관서별곡〉 안에는 두 개의 뚜렷이 구별되는 길이 있다. 작품 처음부터 영변에 있는 평안병영까지 도착하는 길이 하나이다. 백광홍이 평안병영 병마평사로 부임하는 길이니 이것을 “부임길”이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 평안감사와 병사가 군대를 합쳐 북쪽 압록강으로 진군했다가 만포에서 의주를 거쳐 영변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감사와 병사의 순행에 따라간 것이니 이것을 “순행길”이라 부르기로 한다.

북로남왜⁶⁾와 을묘왜변이라는 사건들은 바로 이 부임길과 순행길의 성격과 명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북로남왜는 〈관서별곡〉이라는 작품이 일차적으로 군사적 경향을 띠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동시에 백광홍이라는 사가독서 중이었던 유망한 문신관료를 평안도 병마평사로 보낸 직접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북로남왜는 〈관서별곡〉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북로(北虜) 즉 북쪽 오랑캐의 침략은 몽고 알탄 칸의 침략을 가리킨다. 1368년 명나라에 의해 북쪽으로 쫓겨난 몽고는 이후 홍무제와 영락제의 연이은 대규모 정벌로 결정적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이후 오이라트 에센칸을 중심으로 흥기한 몽고는 1449년 토목보에서 명군 전체를 궤멸시키고 정통제를 포로로 잡고 북경성까지 포위한다. 그러나 1454년에 에센 칸이 사망함으로써 몽고의 세력은 다시 사그라들고 만다.

이후 1479년부터 유명한 만도하이 황후와 그녀의 남편 다얀 칸의 주도하에 몽고는 재기에 성공한다. 두 사람의 손자인 알탄 칸은 1530년대에 들어서면 해마다 명나라를 침략하고 있다. 알탄 칸은 오르도스 지역의 몽고지도자로 1520년 후반부터 강대한 군사력으로 명나라를 압도해 나가다가 이후 1550년 북경을 포위공격함으로써 정점을 찍는다. 1550년대에는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 오이라트 부족 등을 통합하여 몽고 최고의 세력으로 떠오른다. 결국 1550년 북경을 포위하는 사태까지 일어난다.⁷⁾ 명나라는 1551년 몽고와의 마시(馬市)를 열게 되나 1년만에 폐지하고 강경으로 돌아선다.

6) 이하 북로남왜에 대한 설명은 『명사』 18 〈본기〉18 가정제 부분과 『명사』 322 〈열전〉210 일본열전, 『명사』 327 〈열전〉215 달단열전에서 해당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7) 알탄 칸의 북경 공격은 1449년 토목보의 변으로 몽고 오이라트 부족의 에센칸이 북경을 포위공격한 후 꼭 100년만의 일이었다. 1570년대 초반 알탄 칸이 명나라에 귀순할 때까지 명나라의 북경 변경은 무려 40년 넘게 알탄 칸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후 1552년과 53년 두 해 동안 거의 1년 내내 몽고군의 침략에 시달린다. 1554년 이후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나 1570년 정도까지 명나라는 계속해서 알탄 칸의 침략에 시달린다. 알탄 칸은 매번 전투마다 명군을 궤멸시키고 명나라의 지휘관을 죽인다. 말 그대로 상대가 안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기록을 읽고 있노라면 당대인이 혹시 명나라가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마음이 곧바로 느껴진다.

한데 명나라의 어려움은 북쪽 몽고만이 아니었다. 이틈을 타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온다. 왜구는 154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1554년 음력 정월부터 본격적으로 강소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노략질한다. 이후 1559년 1차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왜구는 강소, 절강, 복건, 산둥, 안휘 전 지역을 쓸고 다니면서 초토화시킨다. 특히 1554년에는 소주, 1555년에는 남경까지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 1555년 음력 2월 백광홍이 평안도 병마평사로 임명되던 당시 명나라의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은 <관서별곡>을 둘러싼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줄 수 있다. 첫째, 홍문관 정자를 지내고 사가독서 중이던 백광홍 정도 되는 장래가 촉망되는 명망가가 평안도 병마평사 자리로 가게 된 이유이다. 평안병영에는 말 그대로 최고의 인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관서별곡> 내용 전체에 감도는 군사적 표현들의 긴박감이다. 병마평사가 지었으니 당연히 군사적 내용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표현이 너무 긴박하다.

조선은 명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거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아마 외교적 문제가 될까 우려해서인 것 같다. 이에 따라 명나라 전체를 뒤집어 놓은 북로남왜의 내용도 『명종실록』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 실록만 보면 너무도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기록에는 만나와도 최소한 평안도 지역은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유사시에 대응하고 있었을 것이다.

알탄 칸은 하북, 산서, 감숙 지역을 주로 타격했다. 요동 지역도 거의 매해 침략해 들어왔다. 1552년에는 요양에 세 번 쳐들어왔다. 1556년에는 몽고 장수 토만이 두 번이나 요동에 쳐들어왔다. 1554년에는 몽고군이 북경 근처 계주까지 쳐들어와서 북경에 계엄을 내렸다.

백광홍은 1555년 음력 2월에 평안도 영변에 있는 평안병영의 병마평사로 임명된다. 평안병사를 도와 병영의 모든 조직과 물자 등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조

선의 평안도는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군사체계로 보자면 명나라 요동 지역 그러니가 심양을 중심으로 북쪽 철령과 동쪽 무순, 서쪽 광녕에 이르는 지역의 후방에 해당하는 곳이다. 한데 전방에 해당하는 명나라 북부 전체가 근 20년 가까이 몽고의 침략을 당하고, 요동 지역에도 끊임없이 쳐들어온다. 거기다가 한 6~7년 정도는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 근처까지 몽고군이 쳐들어와서 명나라 조정이 발칵 뒤집힌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선의 평안도 그것도 평안병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거의 준전시 상황의 준비태세가 이어졌을 것이다. 몽고가 명나라를 공격하는 대신 대규모로 요동을 거쳐 조선까지 쳐들어올 수도 있다. 또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족이 몽고 쪽으로 돌아서 조선을 공격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조선으로서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광홍은 1555년 음력 2월 양력으로는 3월에 평안도 병마평사로 임명된다. 당시에는 관직에 임명되고 나서도 본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임하는 데 한 두달 정도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백광홍은 한양 동호에 있는 독서당에서 사가독서 중이었으므로 임명되고 나서 얼마 안있어 길을 나섰다. 보통 군직은 임명되고 나서 한양에서 병조나 비변사 등 여러 관청과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양에서 영변까지는 아무리 천천히 가도 10일이 안걸리기 때문에 백광홍이 중간중간 고을들에 들러 군사적인 업무협의를 하면서 갔다고 해도 10일에서 보름 정도면 영변에 도착했을 것이다.

백광홍은 최소한 양력 4월 20일경에는 영변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서별곡〉에 영변 약산에서 진달래꽃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원(梨園)의 꽃피고 두견화(杜鵑花) 못다 진 제”라고 나온다. 영변에 진달래가 만개하는 때가 양력 4월 중순이라고 하니 진달래가 지기 시작할 때인 4월 말쯤에 이 놀이를 한 셈이다.⁸⁾

이때부터 사가독서를 하던 백광홍은 평안도 병마평사가 되면서 별안간 소문으로만 듣던 북로남왜의 현장으로 뛰어든 셈이 된다. 병마평사가 되면서 문신

8) “진달래는 … 4월 중순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개마고원을 분홍색 일색으로 물들인다.” (강효백, 『강효백의 新아방강역고 461 대한영토 4천리에서만 피는 진달래 (1)』, 『아주경제』 2024. 8.20.,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2094953643>(검색일자 : 2024.8.21.))

이었던 백광홍은 본격적으로 군사적 부문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시대마저 북로남왜의 시대였던 셈이다. 이에 따라 자칫하면 “관서명승지(關西名勝地)에 왕명(王命)으로 보내실새”라고 서두에서 말하고 있듯이 정치좋은 고장에 가서 좋은 구경 실컷하고 올 뻔했던 백광홍은 졸지에 전쟁 체험을 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보면 <관서별곡> 전체가 왜 군사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관서별곡>은 일차적으로 명나라의 북로남왜와 그 후과로 평안병영이 감당해야 했던 군사적 긴장 한복판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것은 작품의 주제와 표현 전체를 결정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서별곡>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명나라의 북로남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백광홍이 영변에 있는 평안병영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도 최남단에 뜻밖의 큰일이 발생한다. 을묘왜변이 그것이다. 1555년 6월 9일(음력 5월 11일) 왜선 70여척이 전라도 해남에 상륙해 강진, 장흥 등 고을들을 잇달아 함락시킨 것이다. 초기에 연전연패하는 상황에서도 나주와 영암을 보존한 조선은 중앙군을 파견하여 반격에 성공한다. 결국 패배한 왜구가 도망감으로써 7월 25일(음력 6월 27일) 을묘왜변은 종결된다.

이 을묘왜변이야말로 <관서별곡>의 창작과 작품세계를 다시 한번 결정지은 사건이다. 하지만 <관서별곡>에는 을묘왜변의 '을' 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사건이 <관서별곡> 안에 등장하며 이것은 분명 을묘왜변과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 <관서별곡> 후반부는 순행길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다. 이때의 순행은 평안감사와 병사가 함께 평안도 북부 지역을 순행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관서별곡>에는 4월 말쯤이면 이미 영변에 도착했던 백광홍이 별안간 평안감사(“甘棠召伯”)와 평안병사(“細柳將軍”)가 군대를 합쳐 압록강으로 순행을 나서는데 따라가게 된다. 한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평안도에는 병사가 한 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두 명이 있다. 감사가 병사를 겸하고 있으며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상관 그러니까 선임병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때의 순행길은 평안감사와 평안병사가 한 것이 아니라 평안병사 두 명이 한 것이 된다.

이 순행은 1555년 양력 5월 이후에 일어난 일이 되므로 을묘왜변 때문인 것

이 거의 확실하다. 을묘왜변이 아니면 〈관서별곡〉에 나오듯이 그렇게도 급히 위력을 뽐내면서 압록강으로 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남쪽에서 연전연패의 소식이 들려오니 혹시 여진족이나 몽고족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올까봐 걱정이 되서 행한 순행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명나라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북로남왜의 상황이 만들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순행은 언제쯤 이루어졌을까. 을묘왜변의 시작이 양력 6월 9일이었으니 이삼일 정도면 전쟁이 났다는 봉화가 평안도까지 전해졌을 것이다. 연전연패의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고 비변사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때는 십일 정도 지나서였을 것이다. 아마 평안감사와 병사를 보고 군대를 합쳐 압록강을 순시하라는 명령도 이때 내려졌을 것이다. 명령이 평안도에까지 전해지는데 5일 정도 소용되었다면 다 합쳐 최소한 15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이 당시 감사는 거의 1년 내내 도내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수령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순행 중이었다. 〈관동별곡〉에서 정철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다. 평안감사 이명규도 을묘왜변이 일어났을 때 한참 도내를 순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별안간 비변사의 연락을 받고 급히 영변으로 가면서 평양에 주둔 중인 자신의 직속부대에게 영변으로 급히 오라고 알렸을 것이다. 영변에서 감사의 부대와 병사의 부대를 합쳐 평안도 연합부대를 만들고 압록강변으로 순행을 떠난 것이다.

말이 순행이지 실은 여진과 몽고의 동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쪽편의 위력을 보여주는 정찰과 견제를 겸한 기동작전인 셈이다. 적에게 이쪽의 군사적 위력을 보여주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영변에서 압록강가에 있는 만포로 이동한 평안병영 연합부대는 압록강가를 따라 늘어서 있는 요새들을 점검하면서 강 건너 여진족의 동태를 살펴보는 한편 이쪽의 방어태세를 과시하는 기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날짜를 따져보면 〈관서별곡〉에 표현된 평안감사와 병사가 군대를 합쳐 평안도 연합부대를 만들고 압록강으로 순행을 떠난 것은 을묘왜변이 일어난 6월 9일로부터 15일 후 그러니까 6월 25일 이후였을 것이다. 최소한으로 잡은 날짜가 이 정도이다.

이 순행은 영변에서 북상하여 압록강 중류에 있는 만포로 가게 된다. 〈관서별곡〉에 만포에 있는 수향정(受降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다. 당시는 7월 한여름이었다. 영변에서 만포까지 아무리 빠르게 전진한다 해도 군대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으니 10일은 걸렸을 것이다. 그럼 만포에 도착한 것은 7월 5일 이후였을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강 건너편 여진족의 동태를 파악하고 압록강을 따라 늘어선 요새들을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을묘왜변은 7월 25일에 끝나니 전라도에서 압록강까지 소식이 오는데 15일을 잡으면 대략 8월 10일 전후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봉화로 승전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다. <관서별곡> 끝부분에는 만포 수항정에서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면서 의주로 내려가는 대목이 나온다. 이 부분은 영변에서 만포로 갈 때의 군사적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을묘왜변의 승전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일인 것으로 보인다.

작품에서 배를 타고 내려갔다고 했으니 배에는 많은 인원이 승선할 수 없으므로 아마 감사와 병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원만 같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평안도 연합부대는 만포에서 해산하여 각기 소속된 곳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래도 사태가 확실해질 때까지 경계를 풀지 않았을 것이니 평안도 연합부대가 해체된 것은 8월 10일 이후였을 것이다. 그럼 백광홍이 그 이후 만포에서 의주까지 갔다가 영변으로 돌아온 것은 8월 말쯤으로 보인다.

의주에 있을 때 명나라로 을묘왜변의 승전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나가고 있다. “제향(帝鄉)이 어디때오 봉황성(鳳凰城) 갖갑도다 / 귀서(歸西)하리 이시면 호음(好音)이나 보내고저”라는 대목이 그것이다.⁹⁾ “귀서(歸西)하리”는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 봉황성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마 심양에 있는 명나라 요동도사에 을묘왜변의 승전을 전하는 사자였을 것이다. 을묘왜변이 아니라도 조선의 비변사와 명나라는 알탄 칸에 대응하여 긴밀한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을묘왜변이 일어났으니 두 나라 사이에 공조가 있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을묘왜변이 일어난 <관서별곡>의 후반부에 작자 백광홍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본래 병영의 병마평사가 하는 일이 부대

9) 여기에서 “귀서(歸西)”라는 표현은 명나라 사람이 아니라 명나라를 높이는 말이다. 귀화(歸化), 귀부(歸附) 등의 표현과 같은 의미이다. 즉 명나라로 사신가는 조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명나라를 높이기 위해 서쪽 명나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전체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한데 별안간 평안병사 두 사람을 도와 기동작전 전체의 세세한 부분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백광홍은 사가독서 과정에 있던 능력있는 문관이었다. 사가독서가 끝나면 판서 정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는 평안병사의 보조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최소한 남쪽에서 진행중인 을묘왜변의 전황에 맞추어 명나라와 몽고의 알탄 칸과의 관계 속에 여진족 각 부족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전략전술을 고안해 내야하는 임무까지 자진해서 맡았을 것이다. 평안감사 이명규나 병사 민응서도 그 정도의 역할을 백광홍에게 기대했을 것이다.

다행히 을묘왜변은 두 달이 채 못되어 조선군의 승리로 끝난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백광홍은 의주에서 영변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하고는 조만간 서울로 올라가 임금에게 보고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이번 평안도 연합부대의 기동작전의 전체 상황에 대해 보고하겠다는 말일 것이다.

이상으로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으로 명나라에서 일어난 북로남왜와 조선에서 일어난 을묘왜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 백광홍의 고향이 전라도 장흥이라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을묘왜변이 일어나자마자 장흥부사와 전라병사가 적에게 죽는다. 왜구는 강진과 장흥을 점령하고 주둔하다가 결국 패배하고 물러간다.

1555년 일어난 을묘왜변은 평안도 평사 백광홍에게 저멀리 남쪽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고향이 점령당했으며 자신의 집안이 침탈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관서별곡〉에 투영된 국토에 대한 의식과 국토를 수호하는 군대의 모습에는 을묘왜변 시기 고향이 침략당한 백광홍의 고뇌가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관서별곡〉 속에 들어간 창작 배경으로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2.2 민응서, 이항, 신잠

그럼 이어서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 중 작자 백광홍의 교유인물 중 작품과 특별히 연관된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백광홍은 1522년에 태어나 1556년에 생을 마감한다. 그는 『선조수정실록』에서 당대 8문장으로 꼽히던 사람들 중 세번째, 기록에 따라서는 네번째로 들어가 있다. 이들 8문장은 서로를

깊이 인정하고 교유하는 사이였다. 백광홍에 대한 당대인들의 평가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¹⁰⁾ 그는 자신이 명망가였던 만큼 당대 최고의 인물들과 두루 교류했다. 같이 8문장으로 꼽힌 사람들은 이산해, 최경창, 최립, 이순인, 윤탁연, 하응림, 송익필이다. 같은 호남 사람으로 김인후, 기대승, 이후백, 양응정, 임억령 등과도 교유했으며 이이 등 명망가들과도 가까웠다. 당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의 인정을 얻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백광홍의 교유인물 중 <관서별곡>의 창작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인물로 민응서, 이항, 신잠 세 사람을 뽑아 살펴보기로 한다. 민응서는 평안병사로 백광홍의 상관이었다. 이항은 당대 유명한 유학자로 백광홍의 스승이었다. 신잠은 기묘명현 중 한 사람으로 백광홍의 고향인 장흥에서 13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하면서 백광홍을 어릴 때부터 키운 스승이었다.

민응서(1499~1563 이후¹¹⁾)는 종종 명종 시기를 대표하는 무장 중 한 사람이다. 여러 도의 병사와 수사를 역임했으며 1554년 2월에 평안병사로 임명되었다. 1555년 2월에 평사로 임명된 백광홍보다 꼭 1년 앞선 시기이다. 이 시기 평안도는 해마다 대규모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병영의 경제적 기초가 약화되던 시기라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명나라는 근 30년 가까이 대해 몽고 알탄 칸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런 시기 평안병사로 부임한 민응서로서는 고민이 컸을 것이다. 한데 민응서가 평안병사로 낙점을 받던 바로 한달 전인 1554년 정월부터 별안간 왜구가 명나라의 강소 지역을 휩쓸고 다니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왜구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시기 평안병사로 부임한 민응서에게는 백광홍처럼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병사 민응서의 고민이 깊었던 시점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백광홍이 1555년 2월 평안도 평사로 낙점을 받은 것은 사가독서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본래 사가독서란 문신 중 언관이나 승정원 등 정통 출세

10) (송)익필은 처음에 시명(時名)이 있어 이산해(李山海)·최경창(崔慶昌)·백광홍(白光弘)·최립(崔嶺)·이순인(李純仁)·윤탁연(尹卓然)·하응림(河應臨) 등과 함께 팔문장(八文章)으로 불리었다.” 『선조(수정실록)』 22년 기축(1589) 12월 1일(갑술)

11) 이것이 민응서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다. 따라서 민응서는 1563년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성의국을 형조 참의로, 민응서를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명종실록』 명종 18년 계해(1563) 8월 9일(을묘)

코스를 거쳐 관서, 정승으로 키울 인재를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보통 동호와 서호에 있는 독서당에서 공부에 전념하지만 중간중간 다른 관직을 맡기도 하고 지방관으로 나가 실무 경험을 쌓기도 한다.

백광홍이 평안도 평사로 나간 것은 그래서였을 것이다. 병마평사는 여진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도 북병영과 평안병영에 있는 문관직이었다. 군대의 여러 사무를 관장하며 병사를 돕는 직책이었다. 병마평사는 조선초기 병마도사를 개칭한 정6품 관직으로 그렇게 높은 관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1550년대 당시에는 매우 중요시되던 관직이었다.

실록에 따르면 “평사(評事)는 절도사의 막료(幕僚)로서 병정(兵政)을 헤아리고 군기(軍機)를 계획하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¹²⁾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평사(評事)는 시종(侍從)이나 대간(臺諫)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선택하여 파견하고”¹³⁾라고 하고 있다. 최소한 1550년대에는 승정원이나 삼사와 같은 언관직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청요직에 있는 사람들 파견하는 자리였으니 그 중요도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다. 사가독서 중이던 당대의 명망가 백광홍을 보낼만한 자리였다.

하지만 백광홍에게는 평안도 병마평사로 발탁된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백광홍 자신과 평안병사 민응서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응서는 백광홍의 스승 일재 이항과 젊은 시절부터 교분이 있던 사이였다. 두 사람은 같은 1499년생이다. 이항은 30세까지 무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젊은 무장들이었던 남치근, 민응서 등과 교류하였으며 모두들 이항을 위로 대접했다고 한다. 노수신이 쓴 그의 묘갈명에는 “남치욱(南致勳), 남치근(南致勤), 민응서(閔應瑞) 무리가 오직 선생의 지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⁴⁾ 민응서와 이항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것이다.

12) 명종 8년 계축(1553) 2월 17일(갑자)

13) 명종 6년 신해(1551) 2월 25일(계미)

14) “타고난 자질이 굳세고 도량이 커서 호걸스러움이 남다르고 용기와 힘이 뛰어났다. 어려서 마을에서 놀 때부터 아이들이 두려워하며 복종하게 하였으며, 자라서는 유희(遊俠)를 좋아하여 만 리를 내달릴 뜻이 있었다. 씨름과 궁마술(弓馬術)은 당시 으뜸이었는데, 극성스러운 도적이거나 배반한 종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가서 제압하였다. 일찍 무과에 급제하여 남치욱(南致勳), 남치근(南致勤), 민응서(閔應瑞) 무리가 오직 선생의 지휘를 따랐다.” 노수신 『소재집』 제 9권 / 비갈(碑碣) 〈유명 조선국 고 중훈대부 장악원 정 일재 선생 이공 묘갈명 병서 [有明朝鮮國故中訓大夫掌樂院正一齋先生李公墓碣銘 并序]〉

이후 이항은 성리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으로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전라도 태인으로 낙향하여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항은 김인후, 조식, 이황 등과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유학자로 꼽히게 된다. 백광홍은 1543년 태인으로 이항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에 매진한다. 고향 전라도 장흥에서 어릴 때부터 스승으로 모신 영천자 신잠이 1543년 태인현감으로 부임하면서 이항에게 백광홍을 소개하면서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가독서 중이던 백광홍이 민응서가 있는 평안병영으로 가게 된 데에는 민응서가 조정에 특별히 백광홍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무인의 길을 걷다가 학자의 길로 나선 이항의 가르침을 받아 문무 모두에 재능이 꽃피었던 백광홍¹⁵⁾을 눈여겨보았던 민응서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물 중 하나가 가사 <관서별곡>의 창작이었다. <관서별곡>은 단순히 문인 백광홍이 우연히 선택한 주제가 아니었다. 일제 이항의 문무겸전한 최고의 제자 중 하나였던 백광홍의 정수가 담긴 작품이다. 이 작품을 남기고 다음해인 1556년 8월 이 천재는 휴가를 얻어 고향 장흥으로 돌아가던 중 병이 위독해져 전라도 순창에서 눈을 감는다.

민응서, 이항에 이어 백광홍의 최초의 스승이었던 영천자 신잠(1491~1554)과의 인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영천자 신잠은 신숙주의 증손자이자 신중호의 아들이다. 집안으로 치자면 당대 최고의 명문 집안 출신이다. 아버지 신중호도 당대의 문사이자 명망가였다. 신잠은 1919년 조광조 등의 추천으로 현량과에 뽑힌다. 하지만 기묘사화로 벼슬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얼마 안있어 1521년 보통 신사무옥이라 불리는 안처겸의 옥사에 연루되어 전라도 장흥에서 13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하게 된다.¹⁶⁾

이때 백광홍 형제를 만나 사제의 연을 맺고 가르치게 된다. 이후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한양 근처 아차산 아래에 집에서 지낸다. 신잠은 시, 그림, 글씨 즉 시서화에 모두 뛰어난 재주를 가져서 삼절이라고 불리었다. 당대 그의 인품과 행실을 접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숭앙했다고 한다.

신잠은 백광홍이 평안도 병마평사로 가기 꼭 4개월 전인 1554년 10월 상주

15) 백광홍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본래 무인이었던 이항의 기질을 닮았는지 그의 제자들은 모두 문무겸전이었다. 임진왜란 때 펼쳐 일어난 전라도 의병장의 70% 이상이 이항의 제자들이었다.

16) 박정민, 「영천자 신잠의 생애와 활동-태인현감 시절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9, 전북사학회, 2020, 142~144쪽.

목사로 있다가 눈을 감는다. 어질고 능력있고 타고난 본성을 잘 발현한다는 뜻을 가진 현량과의 정신을 평생 배신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사로 기묘명현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다. 당대의 멋스러운 풍류객으로 손꼽혔으며 시서화에 뛰어나 삼절로 불린 만능의 문사이기도 했다.

백광홍에게 신잡은 어릴 때부터 스승으로 모신 이래 인격과 학문과 실천의 분위기에 푹 젖은 모범이었을 것이다. 이런 스승의 죽음 앞에서 백광홍은 스승의 평생을 되뇌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백광홍이 영변 평안병영으로 가고 〈관서별곡〉을 짓는 기간에도 나름의 애도의 기간은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관서별곡〉 안에 신잡의 일생은 어떤 식으로든 체취와 원칙으로 그림자를 남겼을 것이다. 〈관서별곡〉을 이해하기 위해 신잡의 일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관서별곡〉을 이해하기 위해 문무겸전의 삶을 산 이항의 일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응서, 이항, 신잡과 〈관서별곡〉의 관계가 작품의 창작 배경으로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그 이유를 잠깐이나마 언급하기로 한다. 〈관서별곡〉은 국토 서북부를 드높이 노래한 기행가사이다. 국토의 순결한 완전성과 그것을 지켜낸 을묘 왜변의 승리를 노래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연산군에서 중종, 명종 시기 끔찍한 사회를 통해 참이 거짓에게, 의가 불의에게 짓밟히는 시기를 겪지만 결국 사림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던 시기를 살아가던 백광홍의 의식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백광홍과 비슷한 연배의 인물들은 자신보다 선배이자 스승들이 절의를 지키면서 불의에 물든 무리들이 더럽힌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한 인물들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도 명종조 을사사화를 일으킨 무리들에 맞서 사림의 기풍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백광홍이 〈관서별곡〉에 국토를 예찬할 때 그의 의식은 이 국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노력한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관서별곡〉과 민응서, 이항, 신잡 세 사람과의 연결점이 있다. 민응서는 평생을 군인으로 이 땅을 지켜왔으며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항은 성리학의 순수한 도덕의 결정체를 최고의 경지까지 추구한 사람이다. 성리학이란 우주와 인간세상이 도덕적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신잡은 사회에 상처입은 대표적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배신하지 않고 절조를 지켰으며 시서화 삼절이라는 풍류로 이름을 떨쳤다.

이 세 사람이 평생을 일구어온 것들이 백광홍의 의식을 거쳐 자연스럽게 <관서별곡> 속에 스며들어 있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관서별곡>은 <관서별곡>이라는 문학적 형식을 빌려 백광홍이 세 사람의 일생에서 배운 바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3. 작품 구성과 두 가지 “길”의 성격

여기에서는 앞절에서 살펴본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에 기반하여 백광홍이 <관서별곡>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 나갔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행문학이란 지구상의 특정한 공간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을 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과정은 작가에 의해 기행공간이 특정한 미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기행가사 <관서별곡>은 1555년 조선의 백광홍이라는 관원이 준전시 상황에 놓여있는 국토의 서북부 지역을 경험하고 가사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에는 전쟁과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에 더 강렬한 국토에 대한 미적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관서별곡>에 표현된 국토에 대한 미적 경험을 “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행문학이란 보통 작자가 여행 중 거쳐간 길을 중심으로 쓰여지기 마련이다. <관서별곡>에서는 여정과 놀이의 반복, 송고와 왕화 등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여정 속에 국토에 대한 사랑과 미학을 집중적으로 투여하기 위해 백광홍이 선택한 창작방법이다.

<관서별곡>에 나타나는 길은 한 줄기 뿐이다. 한양에서 평양을 거쳐 영변에 이르고 다시 압록강가 만포를 거쳐 의주로 갔다가 영변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여기에서는 <관서별곡>에 표현된 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백광홍이 실제로 걸어간 즉 현실 속에서 몸으로 체험한 길이다. 둘째, 그 길에 미적인 감정을 투여한 미적인 길이다. 두 가지 다 작품 구성에 직접 기여

하고 있어 〈관서별곡〉을 이해하는 주안점이 된다.

3.1 작품 구성과 “길”

그럼 〈관서별곡〉의 첫 번째 길 즉 현실적으로 체험한 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이 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루고 있다. 첫째는 작품의 전반부에 작자 백광홍이 한양에서 영변으로 부임하는 “부임길”이다. 두 번째는 영변에서 평안도 연합부대를 만들어 북쪽으로 압록강으로 나아가 의주까지 갔다가 다시 영변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이 길의 성격은 최소한 3단계에 걸쳐 백광홍의 의식 속에서 변화하며 완성되어간다. 첫 번째는 병마평사로 임명되어 평안병영이 있는 영변으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바로 명나라 북로남왜의 상황하에 평안도 병마평사의 시각으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두번째는 을묘왜변이 일어나고 평안감사와 병사의 연합부대가 구성되어 영변에서 만포를 거쳐 압록강을 따라 의주에 이르는 기동작전 과정에서 변화되고 재구성되어가는 과정이다. 세번째는 을묘왜변이 끝나고 나서 전쟁 경험을 평가하고 기존 체제에 대한 반성을 거치면서 평안도 병마평사로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관서별곡〉이다.

문제는 〈관서별곡〉이 을묘왜변의 한가운데서 태어났으면서도 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품의 내용은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영변에서 만포로 평안도 연합부대가 출발할 때도 “이 景(경)도 도커니와 遠慮(원려)인달 이즐쇼냐”라고 하여 이번 출정은 남쪽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이 아니라 길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미리 방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서별곡〉은 마치 평화 시기를 읊은 가사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품 곳곳에 암시와 징후의 모습으로 둘째와 셋째 단계의 모습을 언뜻언뜻 보여주고 있어 이 작품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을 겪고 나서 전혀 변화하지 않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 그 만큼 전쟁은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서별곡〉 전체에 넘쳐흐르는 군대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북로남왜와 을묘왜변 때문이다. <관서별곡>은 겉으로 평화시의 군영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은 그 뒷면에 북로남왜와 을묘왜변이라는 진짜 전쟁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서별곡> 내부에는 복잡한 시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백광홍은 한양에서 평양, 영변을 거쳐 의주까지 갔다가 영변으로 돌아오는 이 길을 두 가지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눈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 <관서별곡>에 형상화된 경치이다. 첫째, 한반도 서북부 산악지역에 펼쳐진 명승지와 경치들을 구경하는 탐방객의 눈길이다. 평야지대인 전라도 출신의 눈으로 보면 신기한 구경거리였을 것이다. 둘째, 평안병영의 병마평사의 눈이다. 모든 길과 경치를 군사적인 눈으로 가늠하고 있다. 특히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군대와 함께 하면서 군사작전을 총괄하고 있다. <관서별곡>에는 첫째 시각이 전면으로 드러나 있고 두번째 시각은 뒤로 숨어있는 모습으로 짜여져 있다.

그럼 <관서별곡> 속에 백광홍이 실제로 경험한 현실 속의 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관서별곡>의 “길”은 외출기 길이다. 따라서 “길”의 구성이 어떻게 짜여있는가가 작품의 구성을 결정짓고 있다. <관서별곡>의 구성은 가사의 구성으로 보통 말해지는 서사-본사-결사 구성을 지키고 있다. 서사는 한양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 본사는 전체 여정이고, 결사는 마지막에 조만간 한양으로 올라가 보고하겠다는 다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양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회귀의 형태로 되어 있다.

전체 여정을 읊고 있는 본사는 2-2-2+1의 구성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관서별곡>의 “길”은 2-2-2+1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2는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모습을 가리킨다. 전반부는 한양에서 영변까지 평안병영 병마평사로 부임하는 길이니 “부임길”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후반부는 영변에서 의주에 이르는 평안도 연합부대의 순행하는 길이니 “순행길”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1은 의주에서 평안병영이 있는 영변으로 돌아오는 감회로 되어 있다.

두 번째 2는 부임길과 순행길이 또다시 둘로 나뉘어지고 여기에 +1이 붙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본사는 다시 4+1개의 작은 단위로 쪼개지는 것이다. 작품 전반부 부임길은 한양에서 출발하여 평양까지 이르는 길과 평양에서 출발하여

영변까지 이르는 길로 나뉘어진다. 한양에서 영변까지 부임하러 가는 길 중간에 평안감영이자 또 하나의 평안병영이자 한반도 서북부 관방의 최고 거점 도시 평양이 있기에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작품 후반부 순행길은 영변에서 출발하여 만포에 이르는 길과 만포에서 출발하여 의주에 이르는 길로 나뉘어진다. 여기에 의주에서 영변으로 돌아오는 길이 덩으로 붙어있다. 순행길은 평안도 연합부대의 작전 목표인 여진족에 대한 기동정찰을 통한 견제를 수행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영변에서 압록강 중류의 거점 요새인 만포로 진출하고 이어서 압록강을 따라 하류의 거점 도시 의주로 내려가는 것이다.

세번째 2는 부임길과 순행길의 둘로 쪼개진 여정들이 다시 둘로 쪼개지는 것이다. 따라서 〈관서별곡〉의 본사는 총 8+1개의 하위 구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특이한 것이 이렇게 둘로 쪼개진 8개의 하위 구성들이 4개의 여정과 4개의 놀이로 정확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4개의 여정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길에 따라 4개의 서로 다른 길의 경치를 구현하고 있다. 4개의 놀이 역시 서로 다른 경치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 4개의 서로 다른 놀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관서별곡〉은 길지 않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한양에서 의주에 이르는 한반도 서북부 경치를 통째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도시에서 도시로 경중경중 건너뛰거나 도시 이름만 열거해서 생기는 효과가 전혀 아니다. 4개의 여정은 여정마다 4개의 놀이는 놀이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관서별곡〉은 대단히 다양하고 동시에 특징적인 8개나 되는 경치를 그 안에 품게된 것이다. 〈관서별곡〉을 읽으면서 겪게 되는 압도당하는 느낌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당대 최고의 문사였던 백광홍의 창작 솜씨를 이 대목에서 구경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서별곡〉의 본사가 여정-놀이-여정-놀이의 교차만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전반부 부임길은 한양에서 평양까지의 여정과 평양에서의 놀이, 다시 평양에서 영변까지의 여정과 영변 약산 동대에서의 놀이로 구분된다. 하지만 후반부 순행길은 영변에서 만포까지의 여정과 압록강변을 순시하는 평안도 연합부대의 용맹한 모습에 대한 찬양, 뒤이어서 만포 수향정에서 출발한 뱃놀이를 가장한 뱃길 여정과 의주 통군정에서의 놀이로 이루어져 있다. 전

체적으로 여정-놀이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전반부와 후반부의 구성을 살짝 다르게 만든 것이다. <관서별곡>은 간단하게 분석해 보려는 게으른 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간단하게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사> 관서(關西) 명승지(名勝地)에 ~ 갈 한나뿐이로다, 한양에서 출발
- <본사1> 연조문(延詔門) 내달아 ~ 생양관(生陽館) 기슭에 버들조차 프르렀다, 한양에서 평양까지 여정
- <본사2> 감송정(感松亭) 도라드러 ~ 객흥(客興)이 엇더하뇨, 평양 대동강 놀이
- <본사3> 누대(樓臺)도 만하고 ~ 팔도(八道)에 위두(爲頭)로다, 평양에서 영변까지 여정
- <본사4> 이원(梨園)의 꽃피고 ~ 초왕(楚王)을 놀내난 닷, 영변 약산 동대 놀이
- <본사5> 이 경(景)도 도커니와 원려(遠慮)인달 이즐쇼냐 ~ 천리검각(千里劍閣)도 이럿딧 하던고, 영변에서 만포까지 여정
- <본사6> 팔만비휴(八萬毗虬)난 ~ 성인지화(聖人之化)로다, 평안도 군대의 압록강 순시
- <본사7> 소화(韶華)도 슈이 가고 ~ 층암절벽(層巖絕壁) 보기도 죠토다, 압록강 뱃길 여정
- <본사8> 구룡(九龍)쇼의 배를 매고 ~ 사친객루(思親客淚)난 절로 흘너 모로매라, 통군정 놀이
- <본사9> 서변(西邊)을 다 보고 ~ 날 가타니 또 보안난다, 의주에서 영변으로 귀환
- <결사> 어니 제 형승(形勝)을 기록(記錄)하야 ~ 미구(未久) 상달천문(上達天門)하리라, 한양에 보고할 것 기약

그럼 본사에 해당하는 2-2-2+1로 구분된 총 9개의 하위 구성 단위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반부 부임길이다. 한양에서 영변에 이르는 이 길은 조선 건국 이래 한번도 전쟁을 겪지 않은 평화의 길이었다. 주로 1년에 거의 10차례 정도에 이르는 명나라로 가는 사신들이 이용하는 길이었다.¹⁷⁾

1555년 음력 2월부터 3월 사이에 이 평화의 길로 백광홍이 부임할 당시만

17) 이길은 1361년(고려 공민왕 10년) 제2차 홍건적의 난 이래 직접적인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다. 이런 길로 부임할 당시 백광홍은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1592~93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1624년 이괄의 반란군이, 1636~37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침략군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해도 먼 북쪽 몽고 알탄 칸의 활동과 강소 절강 지역을 휩쓸고 다니는 왜구의 활동으로 인한 열은 긴장만을 생각했을 뿐 직접적인 전쟁 상황을 겪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평화 위에 서있다. 하지만 을묘왜변을 겪고난 이후 작품을 쓰게 되면서 작품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전쟁의 분위기가 곳곳에 스며드는 복합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본사1〉은 작품 전반부 부임길의 첫 번째로 한양에서 평양까지의 여정이다. 여정에 지나가는 도시들을 마구 주위섬기면서 작자가 왕명을 받들어 빨리 부임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연조문, 모화고개, 벽제, 임진, 천수원, 개성, 만월대, 황강, 구연, 생양관 등 백광홍이 이 길에서 언급한 장소는 모두 이 길 즉 의주대로를 따라 늘어져있는 관방의 요충지들이다. 특히 흥건적의 난 때 격전지였던 황강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가는 길이 단순히 관서명승지를 구경하러 가는 길이 아님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의주대로를 따라 구경가는 길이면 한양-고양-파주-장단-개성-강음-평산-서흥-봉산-황주-중화-평양으로 이어지는 주요 고을¹⁸⁾ 중심으로 지명을 거론했을 것이다.

〈본사2〉는 전반부 부임길의 두번째로 평양 대동강에서의 놀이이다. 이 놀이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대동강 뱃놀이이다. 백광홍은 대동강 남쪽 감송정¹⁹⁾에 도착하여 대동강을 바라본다. 이때 대동강 위에서는 유명한 평양기생들을 동원한 대규모 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둘째는 부벽루 위에서 벌이는 놀이이다. 백광홍은 평양에 들어간 후 대동강 북쪽 부벽루에 올라 눈아래 펼쳐지는 봄날 대동강 경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평양을 거쳐가는 사신단이나 주요 관원들이 으레껏 접대 받는 것이었다.

이 놀이 뒷편에다 백광홍은 평안병영의 병마평사로서 수행했던 또 하나의 평안병영인 평양에서의 공무를 마치 없는 것처럼 숨겨놓았다. 또한 놀이 장소인 대동강과 부벽루를 바라보는 군사적인 눈도 놀이 안에다 숨겨놓았다. 대동강 뱃놀이는 곧바로 대동강 수전으로, 부벽루에 올라 보는 대동강 경치는 대동강 남쪽에 몰려온 적군에 대한 방어에 대한 방어의 시선으로 환치될 수 있다.²⁰⁾

18) 류명환, 「義州路 道程 기록 계통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6(1), 2014, 43~44쪽

19) 작품에는 감송정(感松亭)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송정(載松亭)의 오표이다. 아마 초서를 오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 실제로 임진왜란 때 대동강 북쪽에 위치한 평양성을 방어하던 사람들의 눈이 백광홍이 〈관서별곡〉에 설정한 부벽루에서 바라보는 놀이의 시선과 일치하는 데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본사3〉은 전반부 부임길의 세번째로 평양에서 안주를 거쳐 부임지 영변에 이르는 길이다. 〈본사1〉에서 여러 요새들을 나열하고 있는 데 비해 청천강을 따라 늘어선 대표적인 요새지 안주와 영변 두 곳의 모습만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길 역시 다른 이들이라면 평양-순안-숙천-안주-영변으로 이어지는 고을들²¹⁾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안주와 영변은 고대부터 청천강에서 의주에 이르는 해안길과 내륙길 두 개의 대표적인 길이 시작되는 곳이다.²²⁾ 병마평사 백광홍은 청천강을 따라 늘어선 험준한 절벽들과 이를 이용한 요새들의 쓰임새에 저절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본사4〉는 전반부 부임길의 네번째로 영변 약산 동대의 진달래꽃 놀이이다. 약산은 영변 고을의 진산이자 청천강의 지류인 구룡강 일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망루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원(梨園)의 꽃피고 두견화(杜鵑花) 못다진 제”라고 했으니 배꽃이 피기 시작하고 진달래꽃은 아직 남아있는 4월말쯤이다. 백광홍은 기생들을 데리고 약산 동대에 올라간다. 사실 백광홍은 진달래꽃이 한참 피기 시작한 4월 중순쯤에 이미 부임했을 것이다. 이런 시간의 표현으로 부임하고 나서 정신없이 바쁜 모습과 동시에 좋은 경치를 놓치지 않는 풍류객의 모습의 모습을 은근슬쩍 끼워넣었다.

동시에 약산 동대에서 내려다보는 구룡강의 절벽지대가 가지고 있는 관광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기생들의 모습 속에 은근슬쩍 끼워넣었다. “안저운천(眠底雲天)이 일망(一望)에 무제(無際)로다 / 백두산(白頭山) 내린 물이 향로봉(香爐峯) 감도라 / 천리(千里)를 빗기 흘너 대(臺) 압프로 지내가니 / 반회굴곡(盤回屈曲)하야”라는 표현에서 약산 동대에서 내려다본 험준한 청천강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본사5〉는 후반부 순행길의 첫 번째이다. 평안감사 이명규(“甘棠召伯”)와 평안병사 민응서(“細柳將軍”)가 이끄는 평안도 연합부대가 청천강가의 영변에서

부벽루는 망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대동강 남쪽 감송정에서 바라보는 대동강 뱃놀이는 임진왜란 당시 평양성을 공격하던 왜군의 시선이었다.

21) 류명환, 앞의 논문, 43~44쪽.

22) 안주에서 서해안을 따라 관산, 선천을 거쳐 의주에 이르는 해안길이 하나이고, 영변에서 내륙쪽 태천과 구성 등을 거쳐 의주에 이르는 내륙길이 다른 하나이다. 시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고대부터 보통 내륙길을 이용했다. 실수대첩과 귀주대첩 모두 이 내륙길에서 일어났다. 몽고의 주요 침입로였고 병자호란 때도 청군의 주요 침입로였다. 병자호란 이후 내륙길보다 해안길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출발하여 압록강가의 만포로 나아가는 길이다.²³⁾ 여정 중간의 요새들을 마구 주위섬기는 모습은 평안도 연합부대가 아길을 급히 주파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모습은 한양에서 평양에 이르는 여정을 묘사한 전반부 부임길 첫 번째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평안부 북부의 험준한 산세와 그 속을 진군해 나가는 군대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부임이 아닌 군사작전 중인 평안도 연합부대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사6〉은 후반부 순행길의 두번째이다. 이 부분은 여정도 놀이도 아니다. 평안도 연합부대 기동정찰에 대한 찬양이다. 팔만비휴(八萬毗休), 삼천철기(三千鐵騎), 사마정강(士馬精強) 등의 표현을 마치 난사하듯 늘어놓고 있다. 그 효과는 “호인부락(胡人部落)이 망풍투항(望風投降)”하는 것이다. 남쪽에서 일어난 을묘왜변을 틈타 여진족이 혹시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려는 평안도 연합부대의 최종 전략적 목표를 이렇게 곧바로 적시하고 있다.

〈본사7〉은 후반부 순행길의 세번째로 만포 수항정에서 배를 타고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는 여정이다. 이 여정은 길으로는 뱃놀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압록강 양안의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 건너 여진족의 동태를 살피고 평안도 연합부대의 위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강열진(連江列鎭)은 창괴 버듯 하엿거늘 호지산천(胡地山川)을 역력(歷歷)히 지내보니”라는 표현에서 이 뱃놀이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본사 후반부 순행길의 마지막 네번째는 의주 통군정에서 둘러보는 경치이다. “천고지형(天高地迥)하고 흥진비래(興盡悲來)하니”라는 표현에서 마치 폭풍처럼 휘몰아친 그간의 여정의 끝을 맞이하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을묘왜변으로 긴장했던 마음의 끈이 풀어지는 것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때까지 평안도 연합부대의 모습을 그리다가 통군정에 와서 백광홍은 개인으로 돌아온다. “박모한천(薄暮寒天)의 고적성(鼓笛聲)이 지지”괴는 국

23) 영변에서 압록강가 만포에 이르는 이길은 고대 고구려 때 만포 건너편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내려오는 대표적 길이었다. 고구려 멸망 후 쇠퇴했다가 조선 건국 후 15세기에 고구려의 초기 터전인 집안, 신빈, 통화 등에 자리잡은 여진 건주위와 갈등을 겪으면서 군사적 용도로 이 길은 부활했다. 남이, 어유소, 허종의 원정군이 모두 이 길을 지났다. 16세기 들어 건주위가 친명 정책을 표방한 해서여진의 하타부에 복속되면서 조선의 대규모 원정은 사라졌다. 하지만 압록강가에 늘어진 요새들로 향하는 이 길의 효용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길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가 된다. 한성주, 「조선시대 접경공간의 시대적 변동양상 연구 -압록강·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50,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9, 338~339쪽.

경 군사도시 의주에서 “千盃(천배)에 大醉(대취)하야 무수(舞袖)를 떨치”는, 드넓은 압록강가에서 그 만큼 넓어진 백광홍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로 표현한 <본사9>의 결말이 나온다. 의주에서 영변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서변(西邊)을 다 보고 반패환영(返旆還營)하”여 영변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것이다. 부임길과 순행길이라는 두 개의 길을 몰아치듯 경험하고 영변에 돌아온 백광홍은 그 사이 변화한 자신의 마음을 “장부흉금(丈夫胸襟)이 저그나 하리로다”로 표현하고 있다. 무어라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너무도 달라진 자신의 마음 속을 옛날 정령위가 천년만에 학이 되어 고향 요동으로 돌아와 화표주(華表柱) 위에 앉아 느낀 낯설음에 비교하고 있다.

이상으로 <관서별곡>의 구성을 작품 속에 표현된 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핵심은 <관서별곡>에 표현된 국토 서북부에 대한 여행자이자 군사지도자로서의 시선이다. 이것은 을묘왜변이라는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변화하면서 작품 속에 여러 층의 복합적 의미를 담게 된 모습이다. 또한 서사-본사-결사 구성로 엮고 다시 본사를 2-2-2+1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교묘하게 꾸며진 구성 속에다 엮어내어 자신이 경험한 압도적인 정치와 그 만큼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3.2 송고와 왕화의 길

이상으로 <관서별곡>의 첫 번째 길 즉 현실적으로 체험한 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관서별곡>에 표현된 두번째 “길” 즉 미적으로 체험한 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북로남왜와 을묘왜변이라는 전쟁 상황 속에서 탄생한 <관서별곡>은 특별히 국토에 대한 미적 찬양이 강화되어 있다. 따라서 <관서별곡>에서 “길”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 특성은 주로 조선 서북부라는 국토에 대한 찬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송고”와 “왕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이런 시각을 염두에 두고 <관서별곡>에 표현되어 있는 “길”이 가지고 있는 “송고”의 미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송고”란 작자와 독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하거나 위대한 어떤 것과 대면했을 때 그것에 압도되는 미적 감정을 말한다. <관서별곡>은 평안도 병마평사 백광홍이라는 군사지도자가 뜻하지 않게 을묘왜변이라는 전시상황을 맞아 국토방어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서북

부 지역을 새롭게 바라본 느낌을 서술한 것이다. 바로 국토와 조선군대에 대한 숭고한 찬양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길”과 “강”과 “산”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이것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앞절에서 작품 구성을 설명하면서 〈관서별곡〉의 본사가 여정-놀이를 네 번에 걸쳐 반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때 놀이가 일어난 장소는 평양의 재송정과 부벽루, 영변의 약산 동대, 의주의 통군정이다. 여기에 만포에서 의주까지 이르는 뱃놀이를 추가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들 놀이가 모두 “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이 그것이다. 한데 다시 생각해 보면 〈관서별곡〉에 등장하는 강은 이 셋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백광홍은 한양에서 출발했으니 한강에서 출발한 셈이다. 백광홍이 사가독서하던 동호는 바로 한강가에 있다. 또 백광홍은 출발한 지 얼마 안되어 임진나루에서 임진강을 건넌다. 강 건너편은 바로 개성이다. 작품 속에서는 지명만 빠르게 주위섬겼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한강과 임진강, 대동강이라는 큰 강과 그 사이의 산과 여러 고을들을 지나가는 장대한 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길”과 “강”과 “산”의 시각으로 다시 보면 〈관서별곡〉의 구성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관서별곡〉은 한강에서 출발하여 임진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중류 만포, 압록강 하류 의주라는 다섯 개의 강과 그 사이를 지나가는 다섯 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임진강의 경우 부임길에 지나가는 장소로 간주했기에 작품 속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서별곡〉은 “강”과 “길”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한강-임진강-대동강, 대동강-청천강, 청천강-압록강 중류, 압록강 중류-압록강 하류라는 네 개의 단위로 나누어진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점에서 앞절에서 “길”을 중심으로 설명한 작품 구성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길” 하나가 아니라 “길”과 “강”과 “산”을 중심에 놓고 작품을 보면 단선적으로만 보이던 작품 구성의 복합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작품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대조되는 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본사1〉-〈본사5〉, 〈본사2〉-〈본사6〉, 〈본사3〉-〈본사7〉, 〈본사4〉-〈본사8〉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부임하는 길과 순행시 군대가 행진하는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한양에서 영변에 이르는

길에서 마주치는 강과 산의 모습과 영변에서 만포를 거쳐 의주에 이르는 길에서 마주치는 강과 산의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백광홍은 이런 점들에 착안하여 본사의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대조될 수 있도록 짜내어 〈관서별곡〉을 작품 속에서 표현한 군사적인 힘 만큼이나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럼 〈관서별곡〉에 “길”과 “강”과 “산”을 중심으로 표현된 “송고”의 미학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작품의 초입에 해당하는 한강에서 임진강을 거쳐 대동강에 이르는 〈본사1〉의 길이다. 이 길은 작품에는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한강과 임진강이라는 큰강을 거쳐 황해도와 평안도 남부의 멸악산맥과 언진산맥을 통과하는 길이다.

백광홍은 이 장대한 길의 장대함을 표현하기 위해 거의 설명도 붙이지 않고 지명만을 빠르게 주위섬기는 창작방법을 택하고 있다. 연조문, 모화고개, 벽제, 임진, 천수원, 개성, 만월대, 황강, 구연, 생양관이 그것인 바 이 지명만을 보면 그냥 부임길을 재촉하기 위해 빠르게 지나간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시 이 길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지명만 언급한 것은 오히려 이 지명들과 관련된 경치들을 계속 눈앞에 들이대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미처 소화되기도 전에 계속해서 굉장한 경치들을 들이댔으로써 감정이 증폭되어 이 경치들을 압도적인 송고의 감정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백광홍이 노리고 있는 효과는 바로 이것이다.

이어서 〈본사2〉의 대동강 남쪽 재송정에서 바라본 대동강의 뱃놀이 풍경과 강 북쪽 부벽루에서 바라본 대동강과 평양성의 모습이다. 작품에서는 평양성에 들어가기 전에 재송정에서 뱃놀이를 구경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놀이는 평양에 들어가고 나서 평양감영에서 새로 부임하는 평안도 평사 백광홍을 위해 마련해준 뱃놀이였을 것이다.²⁴⁾ 이런 점에서 부벽루 구경도 역시 평양감영에서 마련해준 놀이로 그냥 구경이 아니라 그 유명한 평양기생을 동반한 잔치였다.

당시 평양 대동강 뱃놀이와 부벽루 구경은 1년에 10여 차례나 있던 사행단을 대접하는 대표적인 놀이였으며 생각보다 훨씬 더 장대한 것이라고 한다. 황해도와 평안도 남부 산악지대를 빠져나오자마자 갑자기 눈앞 가득 펼쳐진 대동

24) 부임길에 대접받았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슬쩍 그저 구경한 것 뿐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것은 당시 관습이었다.

강과 그 위에 떠있는 놀이배들, 평양의 변화한 모습과 부벽루에서 바라보는 장대한 대동강 경치는 빠른 속도로 길게 달려온 〈본사1〉과는 또 다른 압도의 감정을 제공하는 송고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사3〉의 평양에서 안주를 거쳐 영변에 이르는 길이다. 이 부분은 안주 백상루와 영변 철옹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장소 다 청천강의 험준한 길목을 가로막고 선 관방의 요충지이다. 평양 대동강의 평화로운 모습 다음에 별안간 백상루와 철옹성이라는 청천강 절벽을 끼고 선 장대한 경치를 제시함으로써 이 장소들이 들이대는 송고의 감정을 극대화하고 있다.

안주 백상루에서는 청천강의 지류들이 합류하는 삼차형세(三叉形勢)로 표현하고 있다. 청천강 하류의 드넓은 강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영변 철옹성은 연운분첩(連雲粉堞), 천설중강(天設重崗)의 험준한 요새로 사방거진(四方巨陣), 일국웅관(一國雄觀)으로 극찬하고 있다. 언제나 든든하게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장소라는 것을 너자의 무거운 한자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사4〉의 청천강 기슭 영변 약산 동대의 진달래꽃 놀이이다. 이 부분은 약산에서 내려다보는 청천강의 지류 구룡강의 풍경과 약산 위에서 같이 진달래꽃 놀이하는 기생들의 고운 모습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약산 위에 올라 “안저운천(眠底雲天)이 一望(일망)에 無際(무제)로다”, “반회굴곡(盤回屈曲)하야 노룡(老龍)이 꼬리 치고 해문(海門)으로 드난 닷”하는 풍경을 같이 내려다보는 동무들은 “작약선아(芍約仙娥)와 선연옥빈(嬋妍玉鬢)”한 “요대상(瑤臺上) 서왕모(西王母)”와 “낙포선녀(洛浦仙女)” 같은 기생들이다.

구룡강은 양안에 높은 절벽들을 만들면서 구불구불 흘러간다. 바로 이 험준한 산과 강이 구불구불 어우러진 경치는 약산 동대 위를 수놓고 있는 색색의 고운 기생들의 모습과 화려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그 만큼 충격적인 송고의 감정을 제공한다. 사실 이 기생들을 굳이 기생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본사4〉가 “이원(梨園)의 꽃피고 두견화(杜鵑花) 못다 진 제”라고 시작하고 있듯이 봄을 만나 활짝 피어나 약산 동대 위를 붉게 하얗게 울긋불긋 물들이고 있는 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대조시킨 것이 바로 〈관서별곡〉의 주제에 해당한다. 전쟁과 평화, 평화시의 전쟁과 전쟁시의 평화의 풍경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이어서 작품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본사5〉에서 〈본사8〉까지 살펴보기

로 한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서로 대조되는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본사5>는 구룡강가 영변에서 북쪽으로 진군하여 압록강 중류 만포에 이르기까지의 풍경이다. 을묘왜변의 소식을 듣고 평안감과 병사가 군대를 합쳐 영변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희천, 강계를 지나 압록강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장면은 군사적 표현으로 점철되어 있다. “황황옥절(煌煌玉節)과 언건용기(偃蹇龍旗)”로 표현되는 평안도 연합부대가 “백이중관(百二重關)”과 천리검각(千里劍閣)”으로 표현되는 평안도 북부 지역을 급히 달려가는 모습이다. 표현만으로도 당시 평안도 군대와 험준한 지형을 볼 때 느꼈던 승고의 감정을 볼 수 있다.

이때 길은 산골짜기 길이다. “장천(長天)을 빗기 지나 벽산(碧山)을 떨쳐 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바 높은 산 틈으로 올라다보이는 하늘의 모습이 그것이다. 이 길을 도남(都南), 배고개, 설한(雪寒)재, 중강복관(重岡複關) 등 보기에든 무거운 지명들을 주위섬기면서 돌파하는 모습은 험준한 지형이 주는 무게로 감당하기 힘든 승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점은 <본사1>에서 한양에서 평양까지 길을 빠르게 주파하면서 지명들을 마구 주위섬기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지만 영변에서 만포에 이르는 길은 험악한 평안도 북부의 산들이다. 따라서 전쟁 상황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산이다. 이에 비해 한양에서 평양에 이르는 길에 있는 산들은 아무래도 평안도 북부의 산들에 비하면 얌전한 편이다. 이렇게 하여 <본사1>은 평화시의 전쟁의 길을 그렸다면 <본사5>는 을묘왜변이라는 전쟁 한가운데의 길을 그렸다 할 것이다. 똑같이 지명만을 주위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사1>과 <본사5>는 이렇게 하여 전혀 다른 길이 되어 서로 대조된다.

다음 <본사6>은 압록강에 도착한 다음 평안도 연합부대의 위용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본사의 다른 부분에서는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압록강 일대를 순시하는 평안도 군대의 위용을 찬양하고 있다. <본사5>에서 급히 서두르는 모습과는 달리 어조가 상당히 누그러진 모습이다. “팔만비휴(八萬貔貅)난 계도전행(啓道前行)하고 삼천철기(三千鐵騎)는 옹후분등(擁後奔騰)하니”라고 하여 말투는 여전히 기세등등하지만 <본사5>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수그러진 상태이다.

이것은 “호인부락(胡人部落)이 망풍투항(望風投降)하여 백두산(白頭山) 나린

물이 일진(一陣)도 업도다”에서 보듯이 강 건너 여진족이 별다른 반응을 없애는 것을 확인한 안도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도 이쪽의 강대한 평안도 부대와 저쪽의 여진족 사이를 갈라놓는 험준한 압록강이라는 배경이 주는 송고의 감정은 여전히 드높기만 하다.

〈본사6〉은 기본적으로 〈본사2〉에 대조되는 위치에 있다.〈본사2〉는 평양성 남쪽에 드넓게 펼쳐진 대동강의 경치를 구경하는 평화의 놀이이다. 이에 비해 〈본사6〉은 여름철 장마에 불어난 압록강물을 배경으로 하여 강변을 순시하는 평안도 군대를 노래하는 평화의 노래이다. 평화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백광홍은 여정-놀이를 반복하는 〈관서별곡〉의 구성에서 〈본사6〉만 놀이 대신 찬양으로 바뀌도 대충 넘어가게 만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본사6〉은 작품에서 기승전결 중 최고 지점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놀이 대신 찬양을 집어 넣는 것은 바로 이래서이다. 이렇게 하여 〈본사2〉에서 최고의 평화를 찬양하고 〈본사6〉에서 최고의 “전쟁 중 평화”를 찬양하면서 서로 대조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 〈본사7〉은 압록강 중류 만포 수향정에서 배를 타고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이다.²⁵⁾ 겉으로는 뱃놀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자의 시선은 건너편 여진족의 동태를 살피보는 군사적인 것이다. 하지만 어조는 한결 누그러져 있다. 그래서 “소화(韶華)도 슈이 가고 산수(山水)도 한가(閒暇)한 제 아니 놀고 어이하리”로 표현하고 있다.

아마 이때쯤이면 남쪽 전라도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이렇게 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부러 만포에 있는 수향정(受降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포에서 의주로 내려가는 이 뱃길에는 정황상 평안감사와 병사는 그대로 동행했지만 평안도 부대는 만포에서 해체되고 일부만 동행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군사적 시선을 느긋한 뱃놀이의 시선 아래 감추고 있는 것이다.

배를 타고 내려가는 백광홍의 눈에는 왼쪽으로 압록강가에 늘어서 있는 조선의 요새들인 “연강열진(連江列鎭)”과 오른쪽으로 여진족의 땅 “호지산천(胡地山川)”이 대비해서 보인다. 이 뱃길은 “층암절벽(層巖絕壁)은 보기도 조토다”하

25) 이 뱃길은 최근까지도 이용되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2003년 여름에 필자가 만포 건너편 집안에 갔을 때 집안에서 강을 따라내려가 단둥으로 가는 배가 있었다.

데서 볼 수 듯이 험준한 압록강 양안의 절벽과 그 아래 출렁이는 압록강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이 뱃길은 평양 대동강과 영변 약산 청천강과는 또다른 굉장한 송고의 감정을 제공하고 있다.

〈본사7〉은 〈본사3〉과 서로 대조되는 부분이다. 둘 다 배경이 강이다. 〈본사3〉에서는 청천강 하류의 안주에서 청천강의 지류 구룡강을 육로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다. 이에 비해 〈본사7〉에서는 만포 수향정에서 배를 타고 압록강을 내려가는 길이다. 〈본사7〉에서는 전쟁이 끝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경치를 즐긴다. 〈본사3〉에서는 이제 평안병영에서의 본격적인 근무를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백상루와 철옹성의 요새로서의 모습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이다.

다음 〈본사8〉은 압록강 하류 의주에 도착해서 통군정에 올라 바라보는 풍경이다. 눈앞의 풍경을 백광홍은 한 마디로 “대황(臺隍)은 장려(壯麗)하여 침이하지교(枕夷夏之校)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장대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을묘왜변이 양력으로 7월 25일에 끝났으니 백광홍이 통군정에 오른 때는 8월달이다. 아마 8월 10일 이후였을 것이다. 이때는 장마 뒤끝이라 압록강 물이 폭창하여 굉장하게 흘러가는 때이다. 말 그대로 송고의 감정이 저절로 표출되는 순간이다.

강물은 흘러간다는 점에서 시간 내지 역사의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눈앞의 굉장한 강물은 백광홍이 지난 한두달 동안 폭풍처럼 겪었던 을묘왜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켰을 것이다. 이때 백광홍은 쓸쓸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천배(千盃)에 대취(大醉)하여 무수(舞袖)를 떨치니 박모한천(薄暮寒天)의 고적성(鼓笛聲)이 지지권다”가 그것이다. 몰아칠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오히려 그 상황에 더 압도당하는 송고의 순간이다. 그래서 이때의 쓸쓸함은 송고의 다른 표현이다. “천고지형(天高地迥)하고 흥진비래(興盡悲來)하니”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다.

하지만 백광홍에게는 또 하나의 송고의 감정이 남아있었다. “사친객루(思親客淚)난 절로 흘러 모로매리”가 그것이다. 이 구절을 두고 멀리 평안도로 떠나와 고향 전라도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상투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해석한다면 절반만 맞는 말이다. 백광홍이 영변에 부임까지의 감정은 이랬을 것이다.

하지만 을묘왜변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왜구에게 강진과 장

흥이 함락되고 장흥부사가 전사하는 등 날마다 흉흉한 소식들이 전해져 오는 상황에서 집안 소식은 알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평안도 연합부대가 출정하는 등 업무에 얽매어 있어야 했다. 이때 백광홍은 날마다 남쪽을 바라보면서 노심 초사 말 그대로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서별곡〉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통군정에 올랐을 때도 북쪽 명나라로 좋은 소식을 보내는데 정작 집안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을 것이다.

〈관서별곡〉 가장 밑바닥에는 백광홍의 들로 나뉜 이 마음이 깔려 있다. 그것은 한반도 최서북단 의주에서 최남단 장흥을 바라다보는 백광홍의 시선이다. 이것은 또한 〈관서별곡〉에 표현된 그 어떤 지리적 장소나 시선보다 장대한 송고의 감정을 제공한다. 한반도 끝에서 끝으로 이어지는 타는 듯한 백광홍의 마음이 그것이다. 이 마음을 백광홍은 작품의 끝무렵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슬쩍 끼워넣었다. 마치 아는 사람은 알아보라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이 마음이 주는 송고의 감정에서 〈관서별곡〉의 송고의 미학은 완성된다.

〈본사8〉은 〈본사4〉와 서로 대조되는 위치에 있다. 〈본사8〉 통군정에서의 놀이에서 백광홍은 바로 전까지 같이 하던 평안도 군대에서 벗어나 개인으로 돌아가 놀이에 참여한다. 〈본사4〉에서 문사 백광홍은 개인으로 놀이에 참여한다. 그는 험준한 구룡강 가에서 험준한 산천을 뒤덮어 붉게 변화시킨 아름다운 진달래꽃을 찬양하고 있다. 그에 비해 〈본사8〉에서는 장마가 끝난 뒤 폭창한 압록강 물을 배경으로 전쟁이 끝난 안도와 고향에 대한 염려와 전쟁으로 변화하고 성숙해진 자신의 모습을 흥진비래(興盡悲來)라는 막막한 심정으로 춤과 함께 풀어내고 있다. 같은 강가에서의 놀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다음 〈본사9〉는 의주에서 영변으로 돌아오는 길로 압록강에서 다시 청천강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백광홍은 이것을 “반패환영(返旆還營)”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길은 구성, 태천을 거쳐 영변으로 돌아오는 험한 길로 귀주대첩 등 유사 이래 한반도를 외세로부터 지켜준 바로 그 길이다. 평생 시라면 이 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겠지만 할 말을 이미 앞에서 다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감하고 있다.

끝에 “화표주(華表柱) 천년학(千年鶴)인들 날 가타니 또 보안난다”라고 하여 천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정령위가 고향땅을 낮설어 하듯이 불과 한두달 사이

의 경험으로 내면이 너무나도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이 바로 <관서별곡>에 표현되었다고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사>에서는 “어니 제 형승(形勝)을 기록(記錄)하야 구중천(九重天)의 싸로료 미구(未久) 상달천문(上達天門)하리라”라고 하여 영변의 청천강에서 한양 한강으로 보고하러 올라가리라고 말하고 있다. 올라가는 길은 <본사4> 영변에 부임하기까지의 그 길이다. 하지만 그 사이 변해버린 내면 아니 질적으로 성장한 내면은 똑같은 그 길과 그 강과 그 산과 그 풍경을 보아도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전혀 다른 것이 <관서별곡>에 표현된 송고의 감정일 것이다.

이상으로 <관서별곡>의 “길”에 나타난 송고의 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럼 <관서별곡>에 표현된 “길”의 두번째 미학으로 “왕화(王化)”를 살펴보기로 한다. 왕화란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 표현이다. 왕 즉 성왕의 올바른 교화(教化) 즉 가르침을 통한 변화와 그 효과를 지칭하는 말이다.

문제는 왕화가 하나의 미적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왕화가 발현된 땅은 성왕이 최고의 다스림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그러기에 그곳은 환하게 빛나는 땅이다.²⁶⁾ 왕화란 봄날의 햇살처럼 기본적으로 화기(和氣)로 가득찬 땅을 정상으로 한다. 하지만 만약 전쟁이나 반란같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는 가을의 죽이는 기운이나 여름의 뜨거운 기운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도 왕화의 한 표현이다. 최종 목표는 왕화의 기본 모습인 화기를 되찾는 것이다.

<관서별곡>에는 북로남왜와 을묘왜변이라는 전쟁 상황을 맞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 작품을 한결 복합적으로 만들고 있다. 즉 화기와 화기를 망치는 전쟁의 기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관서별곡> 구성의 또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작품 전반부인 한양에서 영변까지는 봄의 화기로 충만하다가 후반부인 영변에서 만포까지는 전쟁으로 화기가 손상되었다가 이후 회복되는 모습이 그것이다.

왕화가 최고의 다스림이 구현된 땅을 표현하는 말이기에 전쟁과는 상관없는

26) 이런 모습은 『서경』 첫머리 요임금을 표현하는 말에서 곧바로 볼 수 있다. 『尙書』 권1 虞書 堯典 “아, 옛날 요임금을 상고하건대 공이 크시니 공경하고 밝고 문체가 빛나고 생각함이 편안하고 편안하시며 진실로 공손하고 능히 겸양하시어 광채가 사방 밖으로 미치며 하늘과 땅에 이르렀다 (曰若稽古帝堯, 日放勳, 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 格于上下.)”

개념처럼 보인다. 하지만 왕화는 전쟁이나 준전쟁 상황을 통해 오히려 더 잘 표현되는 말이었다. 왕화 밖에 있는 상대를 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왕화의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왕화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이다. 다시 말해 왕화란 자신 건너편에 있는 존재를 화외(化外)의 존재 즉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오랑캐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신을 왕화 내의 존재로 규정하는 제국의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즉 전쟁하는 존재인 오랑캐와, 전쟁을 막고 오랑캐마저 왕화 내로 끌어들이는 조선인의 모습을 대비시키는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여진족, 몽고, 왜구에 대응하는 자세가 그것이다. 〈관서별곡〉에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왕화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관서별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화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작자가 지나는 곳마다 왕화의 땅임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니 당대 지식인에게 있어 왕화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땅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었다. 특히 〈관서별곡〉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 국토를 노래한 작품이기에 〈관서별곡〉은 더욱더 왕화를 노래한 작품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관서별곡〉에 나타나는 왕화의 문제를 봄과 여름이라는 계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관서별곡〉의 전반부 그러니까 영변에 부임하기까지 계절은 봄이다. 반면 을묘왜변이 일어나 북쪽으로 압록강을 순시하게 된 때는 여름이다. 이것은 각각 평화시와 전쟁시라는 서로 다른 상황의 왕화의 문제이자 〈관서별곡〉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왕화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럼 〈관서별곡〉에 나오는 “봄”과 관련된 왕화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백광홍이 한양에서 영변까지 가는 “부임길”의 계절은 봄이다. 백광홍은 1555년 음력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양력으로 3월부터 4월 중순 사이 언젠가 약 10여일간에 걸쳐 한양에서 길을 나서 영변으로 부임한다.

이때 주목할 것은 이 시기가 봄꽃이 한창 개화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온 천지가 울긋불긋 미친 듯이 봄꽃이 타오르는 시기이다. 그 만큼의 봄의 생명력이 용솨음치는 시기라는 것이다. 사방에 꽃이 피어오르고 겨우내 얼었던 물도 녹아 강물 개울물 할 것 없이 물이란 물은 온통 부풀어 오른다. 나무마다 새순이

돋고 침엽수는 색깔이 질푸르게 변하고 활엽수는 황홀한 연둑빛으로 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북쪽으로 향하는 백광홍과 함께 봄꽃의 개화도 북상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백광홍이 영변에 도착해서 약산 동대로 놀이를 간 때는 “이원(梨園)의 꽃피고 두견화(杜鵑花) 못다 진” 때이다. 대충 양력 4월 말에 해당한다. 하얀 배꽃이 피어오르고 붉은 진달래가 아직 남아있는 시기이다. 곧이어 철쭉이 온 산하를 붉게 뒤덮는 때가 온다.

〈관서별곡〉의 부임길은 봄꽃 중 특히 진달래의 북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달래는 3월 하순에는 서울과 강원도 중부권, 4월 초에는 평양 모란봉 제령산에 북상하고, 4월 중순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개마고원 일대에 핀다고 한다.²⁷⁾ 최소한 영변 약산 동대의 진달래꽃이 남아있는 4월말 안에는 영변에 갔던 것으로 보이는 백광홍의 부임길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백광홍이 봄의 기운을 몰고 북상하는 것과 같다. 천지의 생명력이 총집합하여 겨울의 음기를 몰아내고 봄의 양기를 온사방에 퍼뜨리는 것이다. 바로 왕화의 기운인 봄의 화기가 북상하는 모습과 일치한다. 이런 모습은 왕화라는 “빛”으로 지리적 장소를 물들이며 전진하는 것과 같기에 “빛의 지리학”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백광홍은 봄빛과 왕화의 “빛의 지리학”을 위해 〈관서별곡〉 내부에 은밀하게 기호들을 숨겨놓았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본사1〉 맨마지막 구절인 “생양관(生陽館) 기슭에 버들조차 프르렀다”이다.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여러 역 중에서 굳이 생양역의 버들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천지의 양기인 봄의 기운을 굳이 생양(生陽) 즉 양기를 낳는다는 뜻을 가진 생양역을 거론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음 〈본사2〉의 대동강 놀이는 “봄비슬 자랑한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27) “진달래는 3월 초순부터 제주도 서귀포에서 피기 시작해, 3월 중순에는 부산, 여수, 목포 한반도 남해안에 상륙하고 1870년대까지 우리땅 대마도에서 피어난다. 3월 하순에는 서울과 강원도 중부권에서 활짝 피고 4월 초에는 평양 모란봉 제령산에 북상하고, 4월 중순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개마고원을 분홍색 일색으로 물들인다. 4월 하순에는 두만강을 훌쩍 건너 연변조선족자치주까지 북진한다 4월말에는 이육고 헤이룽장성 중심도시 하얼빈 일대 산하를 지배한다.” (강효백, 『강효백의 新아방강역고 46』 대한영토 4천리에서만 피는 진달래 (1)』, 『아주경제』 2024.8.20.,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2094953643>(검색일자 : 2024.8.21.))

봄빛으로 가득차 있다. “십리파랑(十里波光)과 만중연류(萬重烟柳)”에 부는 춘풍은 “화선(畫船)”에 “빗기” 얹은 “녹의홍상(綠衣紅裳)” 이름다운 기생들의 옷에도 그들의 가슴에도 불고 있다. 백광홍을 따라온 봄빛이 평양과 대동강을 물들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본사4〉의 영변 약산 동대 진달래꽃 놀이이다. 백광홍은 문득 “이원(梨園)의 꽃피고 두견화(杜鵑花) 못다 진 제”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자신을 따라온 봄꽃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본사4〉는 “녹빈운환(綠鬢雲鬟)”이 “잔(盞) 밧드난 양은 낙포선녀(洛浦仙女) 양대(陽臺)에 내려와 초왕(楚王)을 놀내난 닷”으로 끝나는데 역시 굳이 양대(陽臺)라는 말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자신이 끌고온 봄소식을 이런 식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관서별곡〉 전반부 부임길의 봄빛, 봄꽃, 봄소식을 따라온 왕화는 끝이 난다. 이어서 후반부 순행길의 여름 소식과 그에 따른 왕화의 표현을 살펴보기로 한다. 후반부 순행길은 직접적인 전쟁 상태이다. 전쟁은 본래 계절로 따지면 사물을 죽이는 숙살(肅殺)의 기운에 해당하는 가을에 속한다. 하지만 음모와 변은 여름에 일어났고 그에 따라 평안도 연합부대의 군사행동도 여름에 일어난다. 이에 따라 백광홍은 여름의 이미지를 십분 활용하여 왕화의 땅이 깨뜨려질 위기에 처했다가 결국 승리로 회복되는 모습을 〈관서별곡〉 속에 그려내었다.

그것은 여름의 뜨겁고 강맹한 기운 즉 열양(烈陽)의 기운을 이용하는 것이다. 〈본사6〉에서 평안도 군대는 “팔만비휴(八萬毗貅)난 계도전행(啓道前行)하고 삼천철기(三千鐵騎)는 옹후분등(擁後奔騰)하니”라고 표현된다. 이들이 행군하는 모습은 “황황옥절(煌煌玉節)과 인건용기(偃蹇龍旗)난 장천(長天)을 빗기 지나 벽산(碧山)을 떨쳐 간다.” 강맹하고 뜨거운 군대의 용감한 모습을 여름의 기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뜨거운 기운은 결국 “사마정강(士馬精強)한들 인화(人和) 업시 하울쇼나 시평무사(時平無事)흠도 성인지화(聖人之化)로다”라는 표현으로 수렴된다. 이때 핵심어는 인화(人和)이다. 사람들 사이의 화기가 “성인지화(聖人之化)”의 핵심이며 이 화기 속에 전쟁도 군대도 모두 녹아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지화(聖人之化)” 즉 왕화를 대표하는 기운은 화기 즉 봄날의 따뜻한 기운인 것이다. 〈관서별곡〉은 봄날의 화기를 몰고온 백광홍이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화기를 회복하는 내용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서별곡〉의 가장 높은 지점은 성

인지화와 화기가 있는 〈본사6〉이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송고와 왕화라는 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관서별곡〉의 “길”의 두번째 표현 곧 길이 나타내는 미학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관서별곡〉의 뛰어난 작품성이다. 송고와 왕화가 음양이 서로 감싸안고 돌듯이 서로 엉켜돌면서 〈관서별곡〉이라는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4. 결론

이상으로 〈관서별곡〉의 창작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길”의 특성을 중심으로 작품 구성까지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북로남왜와 을묘왜변, 민응서, 이항, 신잠 등 역사적 사건과 교유인물이 〈관서별곡〉과 맺고 있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백광홍이라는 한 관리의 한반도 서북부 국토에 대한 시선이라는 작품 내부의 상황이 을묘왜변을 맞아 복합적으로 변하는 모습도 살펴보았다. 또한 교묘한 작품 구성을 선택하면서 그 만큼의 여정과 경치에 대한 다양한 감흥과 미학을 작품 속에 끌어들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서별곡〉이라는 작품을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을묘왜변이다. 을묘왜변 때문에 〈관서별곡〉은 현재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 이제까지 을묘왜변을 직접 읊은 가사는 〈남정가〉가 있었다. 하지만 을묘왜변을 전혀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을묘왜변을 읊은 또 하나의 가사가 바로 〈관서별곡〉이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초기 가사의 발전을 주도한 전라도 사족의 창작 활동의 한 단면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관서별곡〉의 밑바탕에는 전라도 장흥이 고향인 백광홍이 평안도 영변에서 을묘왜변 소식을 듣고 노심초사했던 감정이 깔려있다. 이때 왜구는 강진과 장흥을 점령했고 장흥부사와 전라병사가 전사했다. 저 멀리 평안도에서 짓밟힌 고향 전라도 장흥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백광홍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관서별곡〉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겠다.

참고문헌

- 노수신 『소재집』 제9권 / 비갈(碑碣) 〈유명 조선국 고 증훈대부 장악원 정 일재 선생 이
공묘갈명 병서[有明朝鮮國故中訓大夫掌樂院正一齋先生李公墓碣銘 并序]〉
백광홍 저, 정민 역, 『기봉집』, 2004.
『명사』
『명종실록』; 『선조수정실록』
- 김종진, 「〈關西別曲〉의 문화지도와 국토·국경 인식」, 『국제어문』 50, 국제어문학회,
2010, 31~61쪽.
(UCI : G704-000774.2010..50.009)
- 류명환, 「義州路 道程 기록 계통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6(1), 2014, 43~44쪽.
박정민, 「영천자 신잡의 생애와 활동-태인현감 시절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9,
전북사학회, 2020, 142~144쪽.
- 이상보, 「〈關西別曲〉 研究」,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1963, 54~76쪽.
장희구, 「고봉 백광홍의 〈관서별곡〉 결집 고찰」, 『국어교육』 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222~249쪽.
- 한명기, 「임진왜란 직전 동아시아 정세」, 『한일관계사연구』 43, 한일관계사학회,
2012, 192~195쪽.
(UCI : G704-001395.2012..43.012)
- 한성주, 「조선시대 접경공간의 시대적 변동양상 연구 -압록강·두만강 유역을 중심으
로-」, 『중앙사론』 50,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9, 338~339쪽.
-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

| Abstract |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Gwansuhbyeolgok〉 and the Nature of the “Path”

Kim, Yong-cheol

Researcher of Chosun University Institute Humanitie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the Gasa (a type of Korean verse) 〈Gwansuhbyeolgok〉 and the nature of the “path” depicted in the work. 〈Gwansuhbyeolgok〉 is the first travel Gasa written by Baek Gwang-hong when he was appointed as the military official of the Pyeongan military camp in 1555. In this article, two aspects of the background to the creation of 〈Gwansuhbyeolgok〉 are examined.

First is the specific historical context of 1555, the year when 〈Gwansuhbyeolgok〉 was written,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Northern and Southern invasions (Bukro Namwae) in China and the Eulmyo Waebyeon in Chosun. At that time, the Ming Dynasty was suffering from attacks by the Mongol Altan Khan in the north, while new Japanese pirates were invading from the south, a situation historically known as Bukro Namwae. Shortly after Baek Gwang-hong’s appointment to the Pyeongan military camp, the Eulmyo Waebyeon occurred in Jeolla Province in the south, around May to June 1555 in the lunar calendar. These two events not only form the background for the creation of 〈Gwansuhbyeolgok〉 but also leave distinct traces of war within the work, determining its purpose and ideological orientation.

Second is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Baek Gwang-hong and influential figures connected to 〈Gwansuhbyeolgok〉. The most notable among them is Min Eung-seo, Baek Gwang-hong’s superior in Pyeongan military camp. Min Eung-seo was a friend of Iljae Yi Hang, Baek Gwang-hong’s teacher who lived in Taein, Jeolla Province. It seems likely that Min Eung-seo, in need of talent, recommended Baek Gwang-hong, the disciple of his friend, to the court. Iljae Yi Hang, although a military officer in his youth, embarked on the path of Neo-Confucianism after the age of 30. The combination of literary and military qualities in Yi Hang is deeply rooted in 〈Gwansuhbyeolgok〉. Additionally, just a year before the creation of 〈Gwansuhbyeolgok〉, in October 1554, Baek Gwang-hong’s first teacher, Yeongcheonja Shin Jam, passed away. The noble legacy of this teacher, who lived a life of righteousness as a prominent figure

of the Gimyo faction, likely permeates the profound love for the homeland expressed in 〈Gwansuhbyeolgok〉.

Following the examination of the background, this article also explores the structure of 〈Gwansuhbyeolgok〉 and the nature of the “path” embodied in the work. The article distinguishes between two types of “paths” depicted in the work. The first is the path experienced directly in reality, and the second is the path associated with the aesthetic emotions of sublimity and royal authority. These two paths appear differently in 〈Gwansuhbyeolgok〉, corresponding to the first half’s journey to the new post and the latter half’s royal tour. The structure of 〈Gwansuhbyeolgok〉 is determ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h” portrayed in the work, achieving a complex perspective and an equally profound praise of the homeland.

Key words : 〈Gwansuhbyeolgok〉, Baek Gwang-hong, Bukro Namwae, Eulmyo Waebyeon, Gasa